

생태계 복원은 기후, 생물다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



2021.06.04.자 WMO 기사
APCC 전문위원 김세원 번역

기후변화, 자연 손실, 환경오염이라는 3가지 위협을 한꺼번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는 앞으로 10년 안에 적어도 10억 헥타르 크기의 중국 면적에 가까운 질 저하된 땅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 출판한 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들은 땅에 대한 것 말고도 해양에 대해서도 비슷한 약속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제목이 “Becoming #GenerationRestoration: Ecosystem Restoration for People, Nature and Climate”인 이 보고서는 인류가 자연이 지속 가능 한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생태자원 양의 약 1.6배를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UNEP 사무총장 잉거 안데르센과 FAO 사무총장 추둥위는 보고서 서문에서 “이 보고서는 왜 우리 모두가 세계적인 복원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숲과 농지에서 강과 바다에 이르기 까지 생태계가 갖는 중요 역할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구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손실을 도표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지구환경 악화는 이미 세계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32억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의 복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는 세계 경제 생산량의 10%가 넘는 만큼의 생태 자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를 뒤집으면 엄청난 이득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보고서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과 '유엔 생태계 복원 10년(2021-2030)'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생태계 복원이란 더 이상의 악화를 멈추고 이를 돌이키는 과정으로 그 결과 공기와 물은 더욱 깨끗해지고, 극한 기상 발생이 감소하며, 인간 건강은 더욱 튼튼해지며, 생물다양성이 회복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기온 상승을 섭씨 2도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의 환경 악화를 막고, 정지시키며, 원래로 돌리기 위한 행동이 이뤄져야 한다.

WMO가 매년 발간하는 지구기후 현황 연례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육지 및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끊임없이 강조해오고 있다.

바다는 대기로 방출된 인위적 이산화탄소의 연간 배출량의 23%가량을 흡수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켜준다. 그런데 그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바닷물과 반응하여 pH를 낮춘다. 즉 해양 산성화로 알려진 이 과정은 많은 유기체와 생태 자원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어업과 양식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서 식량 안보가 위협받는다. 특히 극지방의 바다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



해양 산성화와 해양 열파는 해안선의 방패역할을 하면서 해양생태계의 중요 축이기도 산호초를 약화시키기도 한다. 이번 UNEP/FAO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산호의 25~50%가 사라졌고, 금세기 중반쯤에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의 산호초 생태계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지난 100년 동안, 세계 습지의 절반이 퇴화되거나 말라버렸다. 이탄지대는 비록 지구를 3%만 덮고 있지만 모든 토양 탄소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탄지대에서 수분 유출을 막고 퇴화된 이탄지대를 다시 적셔 복원시키는 것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조치가 될 수 있다.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되 더 이상의 악화를 멈추게 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진다면 예상되는 생물 멸종 60%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자연생태계 복원은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편익을 한꺼번에 가져다줄 매우 효율적 행동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 하나만을 복원해도 13억 인구의 식량 안보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데,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농업, 맹그로브 보호, 물 관리로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 원래 투자 대비 4배가량의 편익이 돌아오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